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SAIL AWAY

가제 :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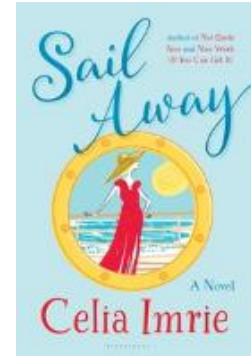
저자 : Celia Imrie

출판사: Bloomsbury Publishing

발행일: 2018년 2월 22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유머/미스터리소설



★ 황혼 이혼한 여성과 퇴물이 된 여배우, 두 60대 여성이 크루즈에 탑승한다. 예기치 않게 범죄자가 탑승하고 있는 3주 간의 크루즈 여행이 두 여인의 인생 반환점이 되어줄 수 있을까?

★ “애거서 크리스티와 ‘사랑의 유람선(The Love Boat: 미국 드라마)’의 매력적인 결합, 고전적인 미스터리 소설의 팬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 「커커스 리뷰」

★ “생생한 줄거리와 과짜 같은 인물들, 명랑하고 재미 있는 소설” - 「데일리 익스프레스」

황혼 이혼한 여성과 퇴물이 된 여배우, 수지와 아만다, 두 60대 여성이 크루즈에 탑승한다. 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새출발을 위해. 크루즈 안에서의 3주 간의 인생 재구축을 위한 계기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러나 크루즈 안에는 안면도 없는 두 사람의 과거에 영향을 끼쳐 온 범죄자가 탑승하고 있다!

수지 마셜은 1980년대 중반에 드라마 시리즈 <달리아>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다. 목요일 저녁마다 방송되는 이 드라마를 보려고 영국 국민 2천 만 명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기다릴 정도였고, 전 세계로 수출되어 큰 명성을 쌓고 덕분에 상도 많이 받았다. 어딜 가나 물려드는 팬들의 성화로 10년 가까이 곳곳을 돌며 사인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30년도 더 지난 지금, 수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인기와 함께 통장 잔고도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미 40대에 진입하면서부터 캐스팅 제안이 줄더니, 조연도 드문드문 말던 시절도 지나가고 단역도 가뭄에 콩 나듯 겨우 하나 잡을까 말까 한 지경이 되었다. 모아둔 돈은 수십 년간 딱히 벌어들이는 수입 없이 지내느라 다 사라지고,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일이 없을 때 부수입원으로 활용하던 소소한 아르바이트도 나이 때문에 우선순위에 배제되기 일쑤였다. 이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한 매니저가 연극 출연 제의가 들어왔다고 전화를 해왔으니,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한 오아시스가 따로 없었다. 심지어 제안이 들어온 연극은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 작품으로 <

진지함의 중요성>인데다가, 언젠가 한 번은 꼭 알고 싶었던 레이디 블랙벨 역할이었다! 약간 의아한 부분과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긴 했다. 일단 감독이나 제작자가 수지로써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고, 출연료가 싸고, 공연이 영국이 아닌 스위스에 있는 소극장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영국 내에서는 딱히 경력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일이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집에서 언제 들어올지도 모를 배역을 기다리느라 무료하게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되리란 생각에 수지는 바로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영국에서 진행된 3주간의 리허설을 마치고 마침내 공연을 위해 스위스로 떠나면서부터 일이 영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연극 제작에 투자한 은행가가 개최한 파티에서 문제가 벌어지면서 느닷없이 공연 자체가 완전히 취소된 것이다. 비행기표 살 돈도 없는 아만다는 대서양 크루즈 선 ‘블루 머메이드’ 호에서 공연할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얼른 지원한다. 비슷한 처지가 된 또 다른 배우, 제이슨도 그녀와 함께 한다.

아만다는 두 아이를 결혼 시키며 40년을 살아온 집을 팔기로 하고, 혼자 살기에 적당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 그리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이삿짐 트럭에 짐을 모두 싣고 새 아파트로 향한다. 밤늦은 시각이라 짐은 다음날 아침에 들이기로 하고, 일단 텅 빈 집에서 하룻밤을 지낼 작정이었다. 그런데 아파트 현관 앞에서 변호사의 전화를 받은 아만다는 집주인이 집을 안 팔기로 마음을 바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다. 이미 정든 집은 매매 계약이 끝나서 되돌릴 수도 없는데, 아만다만 갈 곳이 없어진 것이다. 얼른 딸의 집으로 향한 아만다는 새 집을 구할 때까지 신세를 지려고 했지만, 딸아이 나름의 삶과 계획들이 꼭 차 있는 상황에서 마음대로 끼어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만다의 삶은 남편 때문에 기막힌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다. 결혼할 때만 해도 성실하고 유능한 치과의사인줄만 알았던 남편은 두 남매가 성인이 되어 대학에 들어가고 부부만 남게 되자 본격적으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 사실이 들통나기 일주일 전에 아만다가 좋아하는 고급 식기세트를 선물하더니, 결국 환자와, 그것도 자식들보다도 어린 미성년자와 이미 꽤 오래 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로 지낸 것으로 드러난다. 남편은 아만다에게 샤론이라는 그 여자애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이라며 이혼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남남이 되었다. 좋은 기억만큼 아픈 기억도 많은 집을 처분하고, 두 아이들에게 얼마씩 쥐어주고 산뜻한 새 출발을 꿈꾸던 아만다에게 또 다시 커다란 돌부리가 나타난 것이다. 결국 서둘러 새로 이사할 집을 찾았지만, 몇 주 기다려야 입주할 수 있다는 조건이 주어지자 아만다는 크루즈 여행을 선택한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수지와 아만다의 여행은 희한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예기치 못한 보상과 희망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엉뚱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인물들의 삶과 크루즈 안의 범죄자로 인한 미스터리 요소가 가미된 유쾌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셀리아 아임리(Celia Imrie)는 올리버 상을 수상하고 영화배우협회 여배우 상 후보에 오른 적 있는 배우다. 작가로도 활동하면서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 10위권에 진입한 소설 『Not Quite Nice』와 『Nice Work (If You Can Get It)』, 회고록 『The Happy Hooper』를 썼다.

제목 : THE DRAMA TEACHER

가제 : 연극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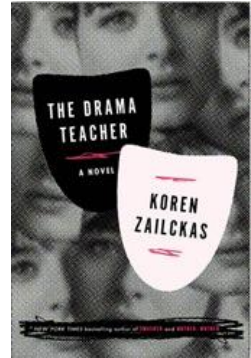
저자 : Koren Zailckas

출판사: Crown

발행일: 2018년 8월 7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심리스릴러소설



★ 연극성 인격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펼치는 곡예와 같은 이야기 / “아주 영리한 심리학적 통찰이 가득한 놀라운 스릴러” – 전작 『Mother, Mother』에 대한 서평, 「San Francisco Chronicle」

★ “뛰어난 전개와 구성, 대화가 돋보이는 소설. 몰입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충격을 주는 이야기.” – 전작 『Mother, Mother』에 대한 서평, 「The Guardian」

그레이시 물러는 뉴욕에서, 어린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이다. 부동산 에이전트인 남편이 그럭저럭 관찮게 버는 덕분에 아주 넉넉하지 않지만 번듯한 집에서 여유 있게 지내왔다.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았던 평온함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남편 랜디의 일이 경기 침체로 하락세에 접어든 것이다. 일주일에 서너 건씩은 체결되던 매매 계약이 뚝 끊겨 버는 돈은 없는데 이미 오래 전 구입한 집 담보대출금은 매달 꼬박꼬박 돌아오고, 두 ,아이들이 유치원이며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에게 기죽지 않도록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들은 계속 생겨나는데 당장 식료품 살 돈까지 부족한 상황이 된다.

그러자 한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레이시 물러의 본색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사실 그녀는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국적도, 나이도, 이름도, 과거에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이, 그저 그레이시가 정한 일종의 캐릭터대로 ‘연기’하는 모습만 보았을 뿐이다. 건축가, 디자이너, 음악가, 여배우, 그 어떤 역할도 해낼 수 있는 치밀한 연기자 혹은 철저한 사기꾼, 그레이시는 원치 않는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다시 그 연기 실력을 끄집어낸다. 그러나 다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한 그녀의 과감한 시도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다.

남일에 너무 호기심이 많은 친구가 그레이시에게 이것저것 캐묻지 않았다면, 일은 복잡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영국에서 나고 자란 그레이시는 남편 랜디와 처음 만난 순간부터 가짜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 여권을 보게 된 남편은 거기 나온 생년월일만 보고 그레이시의 진짜 나이는 모르는 채로 그녀와 결혼했다. 사실 서류상으로 그레이시는, 오즈라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 역시나 사기꾼으로 활약하다 발각되어 체포된 오즈와의 법적인 관계가 들통나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레이시는 미국에 건너오면서 공적인 서류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모든 것을 위조 서류로 만들었다. 오즈가 저지른 사기 행각으로 갚아야 할 빚이 엄청난데, 자신의 위치나 존재가 경찰에게 알려질 경우 남편 대신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을 신청했냐는 랜디의 물음에

도 당연히 했다고 대답만 한 뒤, 역시나 그런 일에 정통한 자들에게 부탁해서 받은 가짜 서류로 주민증을 받았다. 한동안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이 철저한 위장 생활은 랜디의 사업이 하향세에 접어들고, 그의 명의로는 더 이상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발각될 위기에 처한다. 랜디가 그레이시의 명의로 조금이라도 대출을 받아서 밀린 돈을 좀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랜디와 무사히 결혼한 이후로는 더 꾸며내야 할 일이 없어서 잠잠했던 그레이시의 본색이 깨어난 건 그 때부터였다. 그리고 반드시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자꾸만 생겨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 하나 살 돈도 없으면서 고급 리조트 수영장에 두 아이를 데리고 몰래 들어간 그레이시는 멜라니라는 여성을 만난다. 입양한 아이를 데리고 놀러 온 다른 엄마였는데, 처음 그레이시의 목적은 상황을 잘 꾸며서 배고픈 아이들에게 점심 사줄 돈을 굳히는 것뿐이었다. 이런저런 말 돌리기와 핑계로 멜라니가 자신들의 몫까지 점심을 사오도록 만드는데 성공한 그레이시는 스마트폰으로 멜라니와 그녀의 남편 빅터의 뒤를 집중적으로 캐낸다. 사업을 다시 일으켜 보려고 멀리 출장을 간 랜디에게는 YMCA 수영장에 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온 이 리조트에서 벌인 그레이시의 사기 행각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숙박료는 접수처 직원인 척 다른 손님 방에 전화를 걸어서 결제 오류가 났으니 카드 번호를 불러달라고 한 뒤 그 번호로 결제해버리는 수법을 사용하고, 회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수영장 역시 멜라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귀담아 들은 유명 인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초대 받아 온 것이라고 돌려댔다. 그러다 문득, 아이들의 새된 목소리에 주변이 시끄러워진 사이 멜라니는 그레이시가 이름을 소개하자 ‘트레이시’로 잘못 알아듣고, 그토록 쉽게 이름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레이시는 아예 성까지 바꿔서 멜라니를 속인다.

사업이 구제불능 상태가 되고, 랜디가 그레이시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린 바람에 집도 압류된 상황에 몰리자, 랜디는 다른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다. 두 아이와 남은 그레이시는 이름부터 모든 것을 바꿔 ‘마리아나 드펠리스’라는 이름으로 뉴욕에 입성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키티와 피츠, 두 아이는 맨해튼 최고의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자신이 가장 잘 하는 일인 연기 실력을 아예 대놓고 활용할 수 있는 연극학교 교사직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나가 된 그레이시가 두고 온 일들이 자꾸만 그녀의 발목을 잡기 시작한다. 멜라니가 물에 빠져 죽은 채로 발견되면서, 사고사가 아닌 살인으로 의심한 멜라니의 남편 빅터가 죽기 전 아내가 만난 사람들을 일일이 추적하면서 트레이시의 존재도 찾아낸다. 왜 멜라니에게 이름을 거짓으로 알려줬는지, 의아하게 생각한 빅터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마리아나로 살려던 그레이시가 아주 오랜 시간 공들여서 촘촘하게 지어 놓은 거짓말 왕국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저 조금 연기를 했을 뿐, 사기꾼, 거짓말, 도둑, 심지어 살인자가 되려던 생각은 전혀 없었던 그녀의 기막힌 비밀과 정체, 어두운 과거의 이야기도 수면 위로 떠오른다.

<저자 소개>

코렌 자일카스(Koren Zailckas)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Mother, Mother』로 2014년 알렉스 상(Alex Award)을 수상한 작가다. 그 밖에 『Smashed』를 발표했으며, 가디언, 글레머 등 여러 잡지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THE SWAP

가제 : 뒤편 아이

저자 : Fiona Mitchell

출판사: Hodder & Stoughton

발행일: 2019년 4월 4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놀랍고 강력한 스토리라인에 폭 빠져 감동을 받다가 희망적인 결말에 다다랐다. 인간의 생존과 힘, 마음의 회복력에 관한 매력적인 소설” – 전작 『MAID'S ROOM』에 대한 서평, 『A Life Without You』의 작가 캐티 마시**

*** 5개국에 판매되며 큰 인기를 얻은 데뷔작 『MAID'S ROOM』 작가의 신작**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절대로 실수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실수를 저지른다. 이미 벌어진 일을 바로 인정하고 바로잡아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순간을 모면하려고 혹은 영원히 드러나지 않으리라는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실수를 하고도 묻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가 엄청난 피해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다른 일도 아닌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어떨까? 작가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은 두 여성이 병원의 실수로 남의 아이를 낳고,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몇 년을 살다가 뒤늦게 아이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준다. 생활 방식의 급격한 변화로 불임과 난임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번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다루는 일과 관련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식, 그리고 부모의 관계를 깊이 고민하게 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피닉스와 루카, 두 아들을 기르던 테스에게는 늘 딸을 하나 더 낳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남편 마테오는 두 번의 임신을 거치면서 테스가 당뇨와 골다공증으로 크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만 낳자고 설득했지만, 테스는 포기할 수 없었다. 다만 힘들게 하나 더 낳는다면 반드시 여자아이였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다. 영국에 사는 그녀가 미국까지 건너가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도하기로 다짐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성별 맞춤형 시술이 가능하다는 한 클리닉 홈페이지의 소개 글을 본 것이다. 아내의 설득에 넘어간 마테오도 동의하고, 두 사람은 멀리 미국으로 향했다. 당시 마흔한 살이던 테스에게서 채취된 네 개의 난자 중 두 개가 수정됐지만, 자궁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테스는 임신이 확실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 놀랍게도 수정란 하나가 착상하고, 마침내 테스는 셋째 아이를 임신하는데 성공했다. 여기까지는 좋았지만 결말은 그리 좋지 않았다. 태어난 아이는 또 남자아이였기 때문이다.

프레디가 세 살이 될 때까지, 테스는 막내를 볼 때마다 위의 두 아들을 키울 때와는 사뭇 다른 감정에 휩싸이는 것을 느끼며 끊임없이 마음을 가다듬어야 했다. ‘이 아이는 내 애가 아니야’ 근거도 없이 이런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다. 구리 빛이 도는 머리카락 색깔도, 아무리 그만한 나이에 장

난이 심하다고 해도 피닉스나 루카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고집과 말썽이 심한 프레디는 테스에게 자주 낯선 느낌을 주었다. 그런데 뒷좌석에 프레디를 태우고 테스가 운전하던 차가 접촉사고를 내고 모두 병원에 실려가면서 그 묘한 기분이 사실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다. 테스는 O형, 남편 마테오는 A형인데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프레디에게 수혈을 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한 결과 B형으로 나온 것이다. 유전학적으로 절대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 병원 의사는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드물지만 샘플이 바뀌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조심스레 이야기했다. 테스는 일단 친자확인 검사부터 받아보기로 하는데, 결과는 놀라웠다. 친자 가능성 0%로 나온 것이다.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 분명했다.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남들처럼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애니는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험관 아기 시술을 택했다. 최신 기술 덕분에 기적처럼 얻은 딸 월로우는 남편 칼에게도, 애니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다시는 연락할 일이 없으리라 생각했던 병원에서 갑자기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사고’가 발생했으니,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을 확인했을 때만해도 그게 자신과 월로우의 인생이 걸린 문제가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같은 병원에서 애니와 비슷한 시기에 시술 받은 영국인 부부와 애니 부부의 수정란이 뒤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정말로 일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두 가족 모두 충격에 빠진다. 더 큰 문제는 원래 자신이 낳았어야 하는 아이가 딸임을 알게 된 테스는 월로우를 당장 데려가고 싶어하지만, 애니와 남편 칼은 그렇게 물건처럼 아이를 맞바꾸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병원이 돈으로 보상해준다고 한들, 두 부모와 어린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누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 팽팽한 긴장 속에, 모두가 무엇이 과연 자신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옳은 길인지 혼란스러운 갈등이 시작된다.

직접 낳은 아이와 키운 아이, 어느 쪽이 진짜 자식일까? 그 무게를 가늠하는 일이 가능할까? 월로우를 만나기 위해 테스와 마테오는 프레디를 데리고 미국으로 다시 건너오지만, 프레디가 갑작스러운 발작 증상을 보이고 심각한 병일 수도 있다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다시 고민에 빠진다. 작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아이와 부모, 주변 사람들이 겪는 심적 혼란을 세밀하게 그리며 모성애와 상실, 아이를 대신해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과 그 한계를 깊이 고민하게 한다.

<저자 소개>

피오나 미첼(Fiona Mitchell)은 수상 경력이 있는 작가이자 오랫동안 저널리스트로 일해 왔다. 『PLENTY MORE WHERE YOU CAME FROM』으로 2015 프롬 단편소설 상(Frome Short Story Competition) 우승을 차지했다.

제목 : THE SIX LOVES OF BILLY BINNS

가제 : 117세 빌리의 연애사

저자 : Richard Lumsden

출판사: Tinder Press

발행일: 2019년 3월 7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역사



★ 게일 허니만의 소설 『ELEANOR OLIPHANT IS COMPLETELY FINE』, 레이첼 조이스의 소설 『해럴드 프라이의 놀라운 순례』와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의 느낌이 살아 있는 따뜻함과 웃음, 지혜가 담긴 이야기

1900년생, 117세로 유럽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된 빌리 빈스는 이제 자신의 생이 끝나간다는 사실을 온 몸으로 느낀다. 얼마 남지 않은 생을 마감하기 전, 그가 바라는 건 단 한 가지다. 기억력이 더 흐릿해지기 전에 그의 마음을 세게 흔들었던 사랑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다시 되새기는 것이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그는 조금만 집중하면 마치 며칠 전에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옛 일들을 떠올릴 수 있다. 애뒀했던 마음, 설레던 만남, 예기치 않게 엇갈려 애태웠던 감정들. 이 모든 것을 차분히 되새기는 빌리 빈스의 이야기는 어릴 적 자갈 가득 깔린 런던 북쪽의 작은 동네부터 1차 세계대전으로 폭격과 총격이 연일 터지던 전장, 그리고 달콤한 냄새가 가득한 베이커리에 이어 신비한 환상열석이 자리한 더비셔 지방의 언덕까지, 다채로운 시대와 장소를 배경으로 흘러간다. 남들보다 더 오래 살았을 뿐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한 남자의 인생 이야기는 친근함과 함께 눈물과 웃음을 선사한다.

빌리 빈스가 떠올린 첫사랑은 메리는 한창 혈기왕성하던 시절, 빌리가 시골시골한 시장 한 구석이나 외양간 쟁 더미 뒤에 몰래 숨어서 만났던 이런저런 여자애들과 달리 태어나 처음으로 강렬한 사랑의 감정을 느낀 사람이었다. 그러나 뜨거운 감정도 불구하고 너무 어렸던 두 사람은 이미 서로가 평생 함께 할 대상은 아님을 어렴풋이 느꼈다. 너무 일찍 저 세상으로 가버린 메리와의 사랑은 빌리의 마음에 아쉽지만 첫사랑이라는 특별한 마음으로 새겨졌다.

에이블린 엘리스, ‘에비’라 불리던 큰 눈망울의 소녀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죽음을 앞둔 시점까지 빌리의 가슴에 가장 선명하게 남은 사랑이다. 에비를 만나기 전에도, 이후에도 여러 여자들을 만났지만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에비가 유일했다고 빌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누구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던 전쟁 때문에 첫 만남부터 확신했던 사랑을 마음껏 표출할 틈도 없었던 빌리는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베이커리에 취직한 뒤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한다. 늘 그리워했던 마음만큼 에비에 대한 사랑은 깊어졌고 당장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심장이 터질 지경이었다. 빌리를 썩 탐탁지 않게 여기던 에비의 아버지에게 겨우 결혼 승낙을 받고 구름 위에 올라간 것처럼 행복에 젖어서 결혼식만 기다리던 빌리는 이제 에비와 함께 알콩달콩 재미 있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

각했지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은 너무나 큰 시련으로 그 행복을 날려버렸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어리석은 빌리 자신의 실수 때문이었다.

결혼식이 몇 주도 남지 않은 어느 날, 지인을 따라 파티에 간 빌리는 까만 드레스를 차려 입은 예쁜 여성과 가볍게 대화를 나눈다. 혼잡한 파티장에서 각자 즐기던 두 사람은 깊은 밤, 집으로 가던 길에 우연히 다시 만나고 빌리는 추위에 떠는 그 여자에게 겹옷을 걸쳐준다. 벌레 한 마리 보이지 않던 고요한 골목길과 파티장에서 들이킨 술 기운에 취한 두 사람은 충동적으로 입을 맞추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만다. 빌리는 잠시 예비의 얼굴을 떠올렸지만 결혼 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잠깐의 일탈일 뿐이라고, 이런 일로 예비와의 행복이 영향을 받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예비 생각을 지워버렸다. 그러나 이 짧은 쾌락은 그토록 꿈꾸었던 결혼식을 하루 만에 취소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파도가 되어 빌리를 덮치고 만다. 빌리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 여자가 결혼식 일주일 전에 찾아와 임신 사실을 알린 것이다. 암암리에 불법으로 낙태 시술을 해주는 사람까지 알아내고 시술 비용을 근근이 마련하여 없던 일로 만들려고 했지만, 순순히 따라오던 그 여자는 시술 직전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꾸고 말았다. 그 당시의 분위기로는 여자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다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 없었고, 그런 짓을 저지른 남자는 사회에서 매장당할 각오를 해야 했다. 결국 빌리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예비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말았다. 동시에 꿈만 같았던 미래는 거품처럼 사라졌다. 자기 아이를 가진 그 여자와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직후에는 아버지까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이루어지지 못한 예비와의 사랑이 평생 가슴에 남은 건 당연한 일이었다.

세월이 흘러, 빌리가 한창 불행 속에서 허우적대던 시절에 또 한 명의 아름다운 여인이 다가왔다. 그가 마흔을 넘긴 무렵에 만난 베라였다. 되는 일도 하나 없어 우울하기만 하던 빌리에게 아름다운 베라는 다시 삶의 기쁨을 느끼게 해준 고마운 존재였다. 빌리는 그녀를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 꼭 만나야 할 사람’으로 회상한다.

그리고 노년에 찾아온 따뜻한 사람, 잭슨 부인은 빌리의 가슴 깊이 남은 사랑으로 떠오른다. 두 사람은 노년기에 접어든 뒤에 만나 적적하고 외로운 마음을 서로 기댔지만, 세상 사람들은 둘의 만남을 고까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저 멀리 미국에서 여성의 투표권과 사회 평등을 외치던 시절이었지만 잭슨 부인은 흑인이었고, 백인과 흑인의 사랑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여겨져 길에서 손만 잡아도 침을 뱉고 큰 소리로 욕하는 사람이 태반이었다. 빌리는 그 좁아터진 시선들이야 어쩔든 한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잭슨 부인을 인생의 소중한 인연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기도 하면서,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인생을 차곡차곡 채운 사건들과 사람들,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절망, 사랑을 전한다.

<저자 소개>

리처드 럼스든(Richard Lumsden)은 TV 프로그램과 영화, 연극 분야에서 30년간 배우이자 작가, 각본가로 활동해 왔다. <다운힐(Downhill)>, <사이트시어스(Sightseers)>, <센스 앤 센서빌리티(Sense & Sensibility)> 등의 영화에 출연하고 다양한 TV 쇼와 연극 연출을 맡았다.

NON-FICTION

제목 : THE BEST OF TIMES, THE WORST OF TIMES

가제 : 최고의 시대, 최악의 시대: 시진핑, 푸틴, 트럼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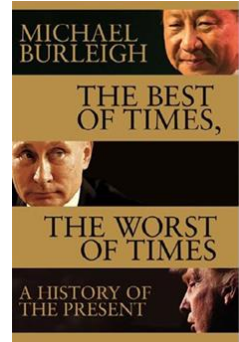
저자 : Michael Burleigh

출판사: Macmillan

발행일: 2017년 11월 2일

분량 : 448 페이지

장르 : 역사/세계정치



★ “에리한 학문적 통찰과 위트를 담아, 현대사를 명확하게 정리한 책” – 「데일리 텔레그래프」, ‘올해의 책’ 선정!

★ “세계 권력정치를 풍성하게, 감상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다룬 책” – 「더 타임스」

2차 대전이 끝난 후 수십 년 동안 서구 사회에 뿌리내린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은 전 세계가 지향하고 따라야 할 흐름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1세기 초반에 세계 정세를 뒤흔든 굵직한 사건들과 그 이후의 여파를 살펴보면, 서구 권력이 앞장서서 만들어낸 흐름을 단순히 따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정말로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깊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무조건 우선하는 노선을 취하고, 유럽은 긴축 정책과 포퓰리즘이 결합된 국가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2차 대전 이후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생각들은 점차 흐릿해지고 있다. 하지만 굳게 믿었던 무언가가 시원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그로 인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서 현재를 ‘최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 영국의 저명한 역사가로 꼽히는 저자는 2003년 이라크 전쟁과 2008년의 대대적인 경기침체 이후 빚어진 혼란과 국제 정세의 변화를 주축으로 삼아, 2017년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바뀐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본다. 중국이 세계화의 선두를 차지하고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통의 과제에서 주도권을 쥐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소비에트 연방이 사라지고 새롭게 탄생한 러시아 정부가 ISIS보다 세계인의 안전성에 더 큰 위협 요소가 된다고 누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 저자는 이 같은 물음의 답을 찾아가면서 더욱 극적인 변화가 기다리는 현 시점에서, 모두가 외치듯 이것이 엄청난 위기일 수도 있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통째 바뀔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다.

냉전이 끝나고 20여 년간 세계 무대에서 단연 앞서가던 미국이 쥐고 있던 주도권은 서서히 약화되고 분산되고, 그 중 가장 큰 몫을 중국이 붙들었다. 기존의 패권 국가와 새로이 부상한 강대국이 부딪히는 상황,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큰 갈등이 초래되고 전쟁의 시초가 되는 이런 상황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묘사되는데,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형성된 팽팽한 긴장은 과거와 같은 무력 충돌이 아닌 경제와 무역 갈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힘의 구도가 이토록

급속히 변화한 데에는 부시 대통령의 오만함에서 시작된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수습을 위한 미국의 전략적인 긴축과, 2008년 경제 위기에서 촉발됐다. 저자는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것 같던 미국의 패권주의가 무너지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된 현 상황을 이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에서부터 출발하여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각 지역에서 벌어진 변화와 더불어 분석한다. 과거 분석이나 미래에 대한 예측보다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깊이 있는 연구 결과와 통찰과 함께 제시된다.

<목차>

머리말

1. 세상을 ‘도덕적 명확성으로 환하게 밝힌’ 두 가지 충격: 냉전 이후 현재
2. 걸프 지역의 라이벌들
3. 이슬람국가(ISIS): 피로 전한 메시지
4. ‘유럽의 환자’: 에르도안의 터키
5. 실패한 국가? 푸틴 치하의 러시아
6. 중국: 노인들의 나라
7. 미국: 시끌시끌한 나라
8. 고결한 제국: 유럽연합

결론

<저자 소개>

마이클 벌리(Michael Burleigh)는 정치 위기 관련 자문가로 활동하면서 세계 정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스탠포드 후버 연구소 객원연구원, 뮌헨에 위치한 독일 현대사연구소 학술자문위원회 회원이다. 저서로는 『Small Wars, Faraway Places』와 새뮤얼 존슨 상(Samuel Johnson Prize)을 수상한 『The Third Reich: A New History』 등이 있다.

제목: THE COURAGE TO RISE

가제: 요가로 극복하는 트라우마

저자: Liz Arch

출판사: William Morrow Paperbacks

발행일: 2018년 6월 5일

분량: 368 페이지

장르: 건강



*** 프랑스, 스페인 판권 계약**

*** 올림픽 선수,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요가를 지도해온 세계적인 강사가 전하는 트라우마 극복의 중요성과 요가, 건강 관리로 힘든 기억에서 벗어나는 법**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면서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 나쁜 기억을 안고 산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끈질기게 남아 전혀 무관한 상황에도 영향을 주거나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기억은, 객관적인 불행이나 사고일 수도 있지만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더욱 이해를 받거나 벗어나기 힘들다. 또한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원인도 정서적 폭력과 신체 폭력부터 성적인 학대, 전쟁, 무시, 배신, 어린 시절에 방치된 경험, 교통사고, 꼭 필요해서 받은 수술 등 의학적인 치료, 지진이나 화재 같은 자연재해까지 매우 다양하다. 개인적으로 가정 폭력의 상처 때문에 오랜 시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이야기하는 저자는, 요가와 명상, 건강 관리를 통해 그와 같은 각종 원인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법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저자는 방송과 수업을 통해 무수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의 몸 구석 구석에 스며든 트라우마의 흔적과 영향을 적극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같은 악몽에 시달리는, 가장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세포 수준까지 남아 있는 트라우마의 그림자를 말끔히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자는 몸을 움직이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현재에 집중하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명상을 통해 가장 힘든 트라우마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1부에서는 먼저 트라우마란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초점을 맞춘다. 원인과 증상, 해소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개개인의 감정과 신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신경과학 분야에서 발표된 최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트라우마가 신경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어디까지 끼칠 수 있는지 알아본다. 특히 대다수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인 수치심의 근원을 분석하여, 스스로 만들어내는 극심한 수치심과 그로 인한 해로운 행동,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의 흐름을 상세히 설명한다. 책 2부에서는 치유의 과정에서 인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각도로 분석한다. 전통적인 대화요법만으로는 제대로 된 치유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몸의 움직임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과 함께, 요가의 치유 효과를 밝힌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고 저자가 실제로 치유 수업에

서 소개해 온 몸과 친해지는 법, 몸에 대한 통제력을 자기 자신이 쥐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어 책 3부에서는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뇌의 잘못된 연결성을 바로잡아 생각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을 소개한다. 분노를 흘려 보내는 방법과 두려운 감정에 익숙해지는 것, 불안과 우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된다. 마지막 4부에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음식이 몸의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려준다. 흔히 먹는 음식들 가운데 염증과 기분장애, 만성 피로 등의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식들을 소개하고 몸에 올바른 영양을 공급하여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트라우마의 특성을 쉽게, 제대로 이해하고 무기력하게 그 거대한 영향력에 짓눌려 사는 대신 요가와 명상,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유익한 건강서다.

<목차>

머리말

1부. 트라우마 이해하기

1장.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흔하다

2장. 트라우마의 작용

3장. 트라우마의 주기

4장. 뇌가 트라우마에 반응하는 방식

5장. 치유의 길을 만드는 것

2부. 몸에서 트라우마 내보내기

6장. 운동이 약이다

7장. 호흡에 담긴 치유력

8장. 호흡법

9장. 신체와 정신의 치유를 위한 운동 순서

3부. 마음챙김 원리로 뇌의 회복력 키우기 (10-12장)

4부. 치유를 위한 식생활 (13-15장)

<저자 소개>

리즈 아치(Liz Arch)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가 강사이며 라이프 코치로 활동해 왔다.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는 요가 수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글로벌 플랫폼 'oneOeight TV'를 통해서도 요가를 가르쳐 왔다. 요가와 관련된 자매 단체 109 World도 운영하고 있다.

제목 : OKAY FINE WHATEVER

가제 : 그래 좋아 상관없어: 나의 공황장애 극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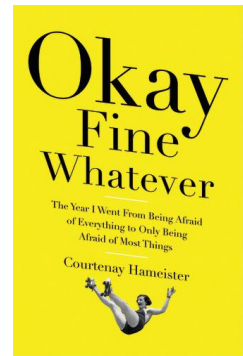
저자 : Courtenay Hameister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18년 7월 31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에세이



★ “웃음과 감동, 가슴 아픈 이야기와 통찰력, 예리한 지성과 깊은 진심이 담긴 책” – 『와일드』의 저자 세릴 스트레이드

★ “거리낌 없으면서도 철저히 독창적이고, 배꼽 잡게 만드는 이야기로 우리 삶의 희한한 경험을 대신 이야기해주는 책” – 『How Georgia Became O'Keeffe』의 작가 카렌 카보

매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사람들을 웃게 만들던 연예인이 공황장애, 혹은 극심한 불안장애로 방송을 쉬는 소식이 들릴 때, 시청자들은 당혹스러운 마음이 든다.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일이 그렇게 힘들면서 그 동안 카메라 앞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 극심한 불안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매 시간마다 견디면서 살아야 하는 중요한 질병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나 증상이 없기에 그 병을 앓는 당사자는 몇 배로 더 힘들다. 이러한 불안 장애를 안고 10년 넘게 라디오 쇼를 진행해온 저자는 어릴 때부터 무작정 견디기만 해야 했던 그 심적인 고통의 역사와, 불안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들을 조금이라도 해내기 위해 작정하고 노력했던 1년간의 시간을 이 책에서 우리에게 들려준다.

일주일에 한 번 방송되던 저자의 라디오 쇼는 100여 개의 라디오 채널로 나가는 전국 방송이었던 데다가, 녹화 당일마다 400명의 방청객이 스튜디오를 찾아왔다. 그 앞에서 저자는 직접 쓴 에세이를 읽기도 하고, 짭작한 코미디 극을 연기하기도 하고 풀리처 상, 오스카상을 수상한 위대한 작가와 영화감독,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훌륭한 사람들과 마주보며 인터뷰를 했다. 방송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 ‘즐거운’ 사람들이나 한다는 생각과 달리, 저자는 매주 방송 며칠 전부터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이 녹화 당일까지 이어지고 무거운 돌처럼 폐를 짓눌러 호흡이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글 쓰는 것이 좋고 주변에서 함께 방송을 만들어가는 사람들과의 협력이 행복해서 방송을 계속 이어나갔지만, 결국 2014년에 불안 발작이 덮치는 바람에 더 이상 극심한 불안을 모른척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모든 것이 항상 불안한 사람’에서 ‘몇몇 것들만 불안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저자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두 번 생각해보지도 않고 ‘안 할래요’라고 할 만한 특이하고 이례적인 일들만 골라서 일부러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번에 여러 명과 데이트하기, 섹스 클럽에 가보기, 구강성교 수업 듣기, 소금물이 채워진 부유 탱크에서 오후 시간 내내 물에 떠서 보내기, 대낮에 합법적으로 구입

한 마리화나에 취해보기, 포옹 ‘전문가’가 진행하는 깨닫기 수업에 참여하기 등을 거치면서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이야기들이 가득 담긴 이 간절한 체험기는 눈물 흘리며 배꼽 잡게 만드는 코믹한 상황들과 더불어 어떤 상황에서도, 얼마나 불안에 떠는 사람이라도 눈곱만큼일지언정 분명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스스로는 매 순간 이겨내야 하는 불안의 급습에 조금이나마 덜 흔들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저자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 꼭 임상적인 불안 장애가 아니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불안과 용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목차>

머리말: 결단력 얻기

1. 한 단계 아래로: 연이은 자살한 모형의 씨앗을 나도 모르게 뿌린 배경
 2. 악마의 집: 스트리퍼의 중요부위, 눈먼 치와와 때문에 기념비적인 문자를 보낸 사연
 3. 약간의 배경 설명: 내 데이트 ‘상황’을 설명해볼까 합시다만
 4. 데이트 모형기 1: 겨울과 봄, 그리고 엑셀 프로그램이 날 몸쓸 인간으로 만든 과정
 5. 포틀랜드의 브라질인: 두 번 다시 건너고 싶지 않은 국경
 6. 데이트 모형기 2: 여름, 가슴아래와 무릎 뒤에 땀이 차는 계절
 7. 합법적인 흥분제: 대마초를 절대 피우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8. 다중 연예담 1: 축구 장비를 혐오하게 된 계기
 9. 다중 연예담 2: 상사란 무엇이고, 주디스 라이트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건
 10. 섹스 클럽의 ‘직접 만들어보는 부리토’ 이벤트: 공개적인 섹스와 토르티야에 실망한 사연
- (이하 생략, 총 16장과 맺음말로 구성)

<저자 소개>

코트니 하마이스터(Courtenay Hameister)는 12년간 NPR 라디오 프로그램 ‘Live Wire’의 진행자 겸 수석 작가로 일하면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200편 이상의 에세이를 썼다.

제목 : BREAKING THE BOOK

가제 : 책의 해부: 책의 대체 불가능성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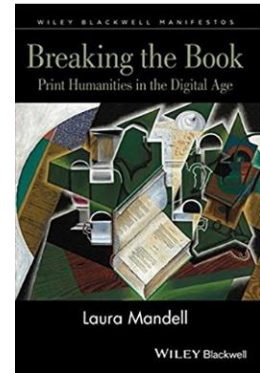
저자 : Laura Mandell

출판사: Wiley-Blackwell

발행일: 2015년 5월 29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인문/역사/출판



- * “책의 중요성과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디지털 미디어는 기존의 도구를 대체하기보다 인류의 학문적 도구 중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 「Sharp」 매거진
- * “인쇄 문화와 인류의 복잡하고 기나긴 관계를 집중적으로, 열정을 담아 풀어 헤친 책” – 앤드류 스토퍼(Andrew Stauffer), 버지니아 대학교

이야기와 정보가 글자와 문장에 담겨 있는 책은 언제부터, 어떻게, 왜 인류의 관심을 얻었을까? 내용과 상관없이 책의 물성에 주목하게 되거나 반대로 책 자체에 거부감이 들게 만드는 요소가 존재할까? 디지털 시대의 인류와 미디어, 문화의 관계를 연구해온 저자는 우리가 책과 상호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학적인 영향과 정서적인 변화를 살펴 보면서 종이에 활자가 인쇄된 형태의 책이 디지털화되면서 함께 변화한 책과 인간의 관계를 추적한다. 디지털 텍스트가 인쇄된 책을 대체하면서 책을 만드는 방식과 필수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개념 자체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저자는 책이 처음 탄생한 과정을 비롯한 책의 전반적인 역사, 그리고 정보와 생각을 전달하는 매체가 달라지면 그것을 이용하고 접하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감정도 달라진다는 흥미로운 사실과 더불어, 책을 대하는 인류의 시선을 토대로 전통적 원칙이 디지털 시대 새로이 확립된 기준과 상충되는 이유를 분석한다. 특히 대량 인쇄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19세기 초부터 100여 년간 이어진 책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그 확고했던 기준이 어떤 저항에 부딪히고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설명한다.

우리가 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 책의 1장에서는 책에 실린 지극히 평범한 언어가 혁명을 일으키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이 내용을 역사 속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 이어 3장에서는 대량 인쇄 문화가 자리를 잡고 이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영어권 문학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문학이나 문화 비평가들이 스스로를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지닌 존재로 여기게 된 과정을 추적한다. 저자는 바로 이러한 착각이 디지털 매체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가치를 폄하하고 변화를 거부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한다.

먼 옛날 소규모 단체에서 직접 종이에 글을 한자한자 써서 책을 만들던 시절에서 대량 인쇄 기술이 등장했을 때 발생한 혼란과 변화는 책이 디지털화되는 과정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는 곧 책의 내용이 인쇄되는 방식이 글의 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저자는

인쇄 문화를 미심쩍어하고 불신하던 사람들, 특히 낭만주의 시대에 영국의 작가들이 대량 인쇄 기술을 비웃기보다 극심한 불안감을 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피할 수 없는 디지털 기술의 등장을 바라보는 작가, 독자, 출판계의 시각 변화와 연계시킨다.

디지털 매체로 한층 더 폭을 넓힐 수 있는 자유로움과 책의 역사는 물론 인류 역사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본 통찰이 두루 담겨 있다.

<목차>

1부. 제본 전

1. 책의 언어

2부. 제본

2. 인쇄의 주관성, 또는 사례의 역사

3. 독서의 확산, 또는 비평이라는 필터

3부. 무제본

결론

<저자 소개>

로라 맨델(Laura Mandell)은 텍사스 A & M 대학교 영문학 교수이자 디지털 인류·미디어·문화 사업 총괄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Misogynous Economies』와 『The Castle of Otranto』 (Longman Cultural Edition), 『Man of Feeling』 등이 있다.

제목 : STANDING AT THE EDGE: FINDING FREEDOM WHERE FEAR AND COURAGE MEET

가제 : 다섯 가지의 위기: 두려움과 용기가 만나는 곳에서 자유를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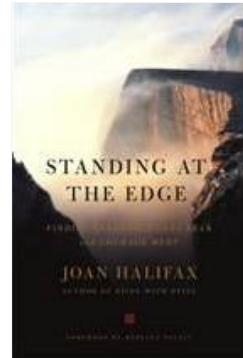
저자 : Joan Halifax

출판사 : Flatiron Books

발행일 : May 2018

분량 : 200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종교



- * “이 책은 삶을 비옥하고 이롭게 한다” 레베카 솔닛의 서문과 함께 출간되는 기대 도서!
- * 140만명이 시청한 TED TALK ”연민과 공감의 진정한 의미”의 스피커이자 저명한 불교 지도자인 조안 할리팩스가 우리 시대의 고전이 될 도서를 출간
- * 삶의 다섯 가지 미덕이 오용될 때 발생하는 “독”을 일깨워주고, 위기에 놓인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놀라운 연구결과를 통해 밝히는 책
- * 조안 할리팩스의 TED TALK: https://www.ted.com/talks/joan_halifax?language=ko

우리는 이타주의, 공감, 진실성, 존중 그리고 약속이란 단어들을 인생의 가치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 가치들에도 위기란 오는 법이다. 할리팩스 박사는 “안 하느니만 못한” 미덕들을 행하는 남용 또는 오용 상황에 주목하고 이 가치들이 시험에 올랐을 때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들을 제시한다.

사회 지도자, 인류학자, 불교 지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십여 년간 활동해온 저자가 신경과학자, 심리학자 및 의사들이 발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명상이 주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 설명한다. 그녀는 어려운 도전이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괴로움을 타인을 위한 연민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위기 상황 이야말로 용기와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독자들을 위로하며, 시, 우화, 불교의 가르침 그리고 저자의 경험을 포함해 풍부한 설명과 예시를 담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

<목차>

레베카 솔닛 서문

개요: 위기에 서서 - 나 자신의 위치를 알기

Part 1. 이타주의

- I. 이타주의의 위기 - 나 자신을 잊고 이타주의를 행한다는 것
- II. 이타주의의 위기: 병적인 이타주의 / III. 이타주의를 돕는 행동들 - 같이 할 수 있는 행동들
- IV. 이타주의 위기의 발견 - 오픈 마인드와 사랑

Part 2. 공감

- I. 공감의 한계점에서 -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인 공감
- II. 공감의 위기: 공감의 고통 - 공감은 이타주의가 아니다
- III. 공感到 도움을 주는 행동들 - 딥 리스닝과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공감 행동
- IV. 공감 위기의 발견

Part 3. 진실성

- I. 진실성의 위기에서 - 도덕적 대담성과 극단적 낙관주의
- II. 진실성의 위기: 도덕적 고통 - 도덕성이 상처 받았을 때
- III. 진실성을 돕는 행동들 - 감사함을 행동하라 / IV. 진실성 위기의 발견

Part 4. 존중

- I.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위한 존중
- II. 존중의 위기: 무례함, 억압 그리고 폭력의 원인과 영향
- III. 존중을 돕는 행동들 - 드라마 트라이앵글, 타인과 나 자신을 바꿔보기
- IV. 존중의 위기에 대한 발견

Part 5. 약속

- I. 약속의 위기에서 - 지나치게 바쁘다는 것
- II. 약속의 위기: 일 중독, 번 아웃 증후군 그리고 시간의 빈곤함에 관하여
- III. 약속을 돕는 행동들 - 일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 IV. 약속의 위기에 관한 발견

Part 6. 연민의 위기

- I. 착한 자만이 살아남는가? - 연민과 과학 / II. 연민의 세가지 얼굴
- III. 여섯 가지의 완벽함 / IV. 연민의 적 - 계산하는 마음
- V. 연민을 맵핑하다 - 연민은 연민적인 요소들이 아닌 것에서부터 만들어진다
- VI. 연민을 돕는 행동 - G.R.A.C.E를 실천하라 / VII. 어두운 곳에서의 연민

<저자 소개>

로시 조안 할리팩스(Roshi Joan Halifax) 박사는 불교와 선 지도자이자 인류학자이다. Abbot의 창시자이자 Upaya Institute 과 미국 산타페의 Zen Center의 교장이기도 하다. 의학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 대학의 의료 민속 식물학의 명예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현 Upaya Prison Project와 네팔의 Nomads 클리닉의 창시자이다.

제목 : A NEW WAY OF SEEING

가제 : 생소함의 힘: 위대한 작품을 만든 남다른 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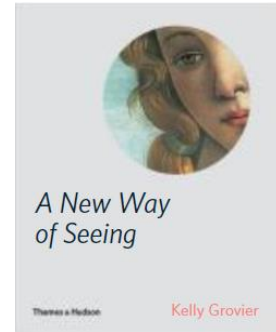
저자 : Kelly Grovier

출판사: Thames & Hudson

발행일: 2018년 10월

분량 : -

장르 : 예술



*** 그림과 조각, 예술품이 시대를 초월하여 사랑 받는 ‘명작’, ‘걸작’으로 만드는 특별한 요소, 그 작품만이 가진 ‘생소한 매력’을 찾아 세밀하게 분석한 책**

예술 작품을 누구나 걸작으로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예술적인 기교나 함축된 의미를 굳이 설명하고 따지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 끄는 예술품은 그냥 평범한 예술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는 사람의 상상력에 불을 지피는 특별한 매력을 지닌 명작들이 심지어 수백,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 넘어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작품들의 공통적인 본질적 요소는 무엇일까? 역사가로, 비평가로 활동해온 저자는 예술비평가 로버트 휴가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을 보고 밝힌 결론에 그 답이 들어 있다고 설명한다. 제목만 들어도 대략적인 그림이 떠오를 정도로 유명하고, 노트나 문구류, 테이블 매트 같은 주방용품, 커튼을 비롯한 생활용품은 물론 상업 광고에도 자주 등장할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진 이 작품에 두고, 로버트 휴는 ‘아무리 많이 복제된다 한들, 원본을 바라보면 생소함에서 나온 힘이 즉각적으로 느껴진다.’고 표현했다. 시간이 지나도 전혀 시들지 않는 이 생소함의 힘, 저자는 긴 세월 세대를 넘어 사랑 받는 작품들에는 바로 이 생소함이라는 특징이 담겨 있다고 보고 이 책에서 57선의 예술작품을 예로 들어 그 특별한 개성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반 고흐 자신도 위대한 작품에는 여타의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어딘가 굉장히 낯설지만 눈을 땔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있음을 인지했다. 즉 로버트 휴가 말한 생소함의 힘이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한 작품에서 그림자나 선, 색의 느낌과 같은 구체적인 디테일이나 품질, 특징으로 집약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고흐는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리기 전, 프랑스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의 작품 <폭풍 속에 잠든 예수>를 보고 그 남다른 특징을 포착했다.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 떠 있는 보트와 거친 물살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온하게 잠든 예수의 모습을 그린 이 작품은 하늘에 잔뜩 끼어 있는 먹구름과 짙은 바다 색까지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감이지만 자연스레 시선이 모이는 곳이 있다. 바로 예수의 머리 위에 작고 둥글게 빛나는 광환이다. 고흐는 ‘레몬 빛깔이 살짝 가미된’ 이 노란색이 형언할 수 없는 생소함과 마치 하늘에 별이 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작은 광환의 색 자체가 상징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작품과 처음 마주하는 순간 눈길이 저절로

향하는 곳, 불쾌하지 않은 놀라움과 함께 시선을 모으고 그곳을 중심으로 작품 전체를 바라보게 되는 사소하지만 알고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 저자는 57선의 예술작품에서 이 흥미로운 개성을 찾아 우리에게 상세히 보여준다. 만들어진 시기와 장소는 제각기 다르지만, 언제 어디에서 누가 보아도 작품과 일종의 유대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 유대를 통해 우리가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하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놀라운 능력을 분석해본다. 각 작품마다 컬러 사진 자료가 여러 장 제시되어 저자의 설명에 따라 꼼꼼히 뜯어볼 수 있어서 더욱 유익한 학습 기회가 될 만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약간의 생소함

작품 57선

1. 사자를 죽이는 아슈르나시르팔 2세 (기원전 645-635년경)
 2. 파르테논 부조 (기원전 444년경)
 3. 진시황제의 병마용 (기원전 210년경)
 4. 폼페이 미스터리 빌라 (기원전 60-50년경)
 5. 라오콘과 그의 아들 (기원전 27-기원후 68년경)
 6. 트라야누스 기념탑 (다마스쿠스의 아폴로도로루스, 113년)
 7. 켈스의 서 (800년경)
 8. 산과 강의 여행자들 (범관, 1000년경)
 9. 바이외 태피스트리 (1077년 이후)
- (이하 생략, 총 57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켈리 크로비어(Kelly Grovier)는 시인이자 역사가, 문화 비평가로 활동해 왔다. 「옵저버」, 「선데이 타임스」, 「와이어드」에 글을 기고해 왔으며 「Times Literary Supplement」에도 예술에 관한 글을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다. 국제 학술지 「European Romantic Review」의 공동 창립자로, 저서로는 『100 Works of Art that Will Define Our Age』가 있다.

